

호남권 산업단지를 창조경제 거점기지로

특 산업구조 고도화사업 추진

기업지원·문화시설 확충... 일할 맛 나는 공간으로

대불-조선, 익산-귀금속 인프라 개선사업

광주 첨단·하남산단도 고용환경개선 나서

휘슬러(Fessler) 발출 생산지로 유명한 독일의 소도시 에슬링겐의 '다스 디크'(Das Dick) 공장은 산업구조 고도화 빛을 봤다. 1970년대 철강 산업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산업구조 변화로 1990년대에 공장폐쇄까지 이르렀으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이 펼쳐졌다.

공장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극장과 문화시설을 집어넣었고, 3년 동안 리모델링을 거쳤다. 그 결과 연간 100만 명이 방문하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고, 일자리만 3만6000개가 새로 생겨났다.

산업구조 고도화사업(노후 산업의 기반시설 정비 및 기업지원, 문화시설 확충)은 호남지역 산업단지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작이 집약된 지역의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단의 구조개선 및 고도화사업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지역본부는 올해 구조고도화 대상산업단지인 군산, 대불, 익산산단에 산업단지 인프라 혁신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호남의 주요 산업단지는 생산기능 중심으로 구성돼 일부 산단의 경우 기업의 영세성 극복에 대한 해법 마련이 절실했다. 또 산업집적지로서 보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산단의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산단 경쟁력 저하의 문제는 곧 지역 경제의 체질 저하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산단을 신성장 산업의 거점이자, 고부가가치화시키



지난 18일 목포 호철현대에서 전남지역 산·학·연·관 혁신주체들이 모여 '대불산단 창의·혁신 정책포럼'을 창립했다. 이 포럼은 앞으로 대불산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의 성공추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지역본부 제공)

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구조고도화 확산단지로 지정된 대불산단은 올해부터 구조고도화사업이 집중 처방된다.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기업지원시설 유치 등을 통한 대불산단의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조선해양 국제 인증 기반 구축 ▲업종다

화 지원사업 ▲특화산업 기술개발 구축 ▲복합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 ▲전선지중화 ▲도로환경 정비사업 ▲배수펌프장·하수관개 정비 ▲산업단지 문화복지 증진 ▲근로자 기숙사·편의시설 확충 ▲외국인 체제 기반 지원시설 유치 등을 통한 대불산단의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조선해양 국제 인증 기반 구축 ▲업종다

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산업집적센터 ▲플라즈마 융복합연구개발동 ▲휴(休)·컴플렉스(Complex) 조성 ▲생산·지원 복합 시설 등 8개 사업이 예정돼 있고, 익산산단도 익산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과 귀금속1단지 환경개선사업 등이 펼쳐지게 된다.

이외에도 혁신산업단지 사업(대불), 고용환경개선사업(광주·대불) 등 산단의 기능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호남지역 산단에 창의와 혁신, 일자리와 문화공간이 풍성한 미래지향적 산업단지로 재정의되는 지원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산업단지공단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대불산단은 구조고도화를 통해 근로자에게는 만족을 주고, 취업을 앞둔 청년층에게는 가고 싶은 일터가 되는 혁신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말에는 광주 첨단·하남산단도 고용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트렉스타 광주 흑석직영점 내일 오픈 산악인 김홍빈씨 명예점장으로 활동

최근 이웃도시 브랜드 트렉스타의 홍보이사로 선임된 전문산악인 김홍빈(사진)씨가 28일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에 정식오픈하는 흑석직영점 명예점장으로 활동한다.

김씨는 1991년 북미의 알래스카 매킨리를 단독 등반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구조과정에서 동상으로 열 손가락 잃었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남극의 빈슨 매시프 등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8000m급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 캄덴중가 등 8개봉을 등정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한 전문산악인이다.

김씨는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아웃도어에 대한 지식을 하게되며, 매장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올해 가을 계획하고 있는 네발 마나슬루(8163m) 원정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29일에는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홍보이사로 선임된 전문산악인 김홍빈(사진)씨가 28일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에 정식오픈하는 흑석직영점 명예점장으로 활동한다.

트렉스타 흑석직영점은 이번 김홍빈씨의 명예점장 위촉과 오픈을 기념해 할인행사 및 사은품 제공 이벤트를 연다. 매장 방문 모든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고 고어텍스재킷을 100벌 한정으로 6만원, 경량 다운재킷 300벌 한정으로 5만원, 바람막이 재킷은 200벌 한정으로 3만원에 특가로 판매한다.

50만원 이상 구매 때 제주 왕복선권 2매를 선착순 증정하며 30만원 이상엔 창갑이 교환권, 15만원 이상 구매 땀 소정의 사은품을 준다. 문의 (062)956-833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비맥주, 에일맥주 시장 뛰어든다

'에일스톤' 다음달 출시

오비맥주(대표 장인수)가 에일맥주 시장에 본격 도전장을 내밀었다.

오비맥주는 정통 영국 스타일의 프리미엄 에일맥주 '에일스톤(ALESTON)'을 다음달 1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비맥주가 자체 브랜드 명으로 에일맥주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일스톤'은 국내외에서 맥주 양조 기술력을 인정받은 80년 맥주명가 오비맥주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자부심으로 빚어낸 진하고 부드러운 정통 영국식 프리미엄 에일맥주다.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어울리게 개발했으며, 다채로운 입맛 충족을 위해 '브라운 에일'과 '블랙 에일' 2종을 선보인다.

'브라운 에일'(알코올도수 5.2%)은 홉의 귀족이라고 불리는 노블 홉(일반 맥주보다 3배 더 사용)과 과일 몰트를 사용하여 매력적인 짙은 아로마 향과 고혹적인 자주색으로 구현된 정통 영국식 페일 에일맥주다. 일반 공정에 비해 맥즙을 1.5배 이상 오래 끓이는 공법을 활용해 노블 홉의 매혹적인 향을 최화했다.

'블랙 에일'(알코올도수 5.0%)은 영국산 블랙 몰트와 펠렛 홉을 사용하여 흑맥주의 씩씩한 맛과 부드러운 거품을 함께 구현한 크리미한 흑맥주



다. 특히 고온 담금 방식 공법을 활용, 영국 정통 방식으로 로스팅한 블랙몰트로 풍성한 거품을 구현해 냈다. '에일스톤' 330ml 1병당 출고가격은 브라운 에일과 블랙 에일 모두 1493원이다. '에일스톤' 2종 모두 병(330ml)과 캔(355ml, 500ml) 등 3가지로 출시되며 4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만날 수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내국인도 공인인증서 없이 홈쇼핑 구매 가능 해진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을 통한 홈쇼핑 직접 구매가 올해 상반기 내에 가능해진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오는 6월부터 내외국인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피자가게나 꽃가게, 홈쇼핑 등에서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커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벼 직파재배 시범 운영단 발족

농협전남본부

농협이 벼 직파재배 시범 운영단을 발족하고 생산비 절감과 생산량 증가의 희망을 키우는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종수)는 영암군에서 벼 직파재배 시범 운영단을 발족하고 책임운영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발족한 시범 운영단은 앞으로 10개월여간의 벼 직파재배 영농을 통해 생산비 절감 및 수확량 증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게 된다. 또 농협 지역본부와 함께 생산관리는 물론 수확에서 관매까지 전 과정을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인력과 농

기계 및 영농경영비 등을 지원해 영농활동에 애로사항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수 본부장은 "벼 직파재배 사업은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해 우리 쌀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국가적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리농업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성공으로 쌀 산업의 초석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벼 직파재배법은 물논에 직접 파종하는 무논직파와 마른논에 파종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담수해 재배하는 건담직파로 구분한다. 재배 과정에서 육묘 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생산비가 20~30% 절감되고 생산량은 10~20%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Advertisement for Treksta's 'OPEN EVENT' featuring a large 'OPEN' graphic, a photo of a man in outdoor gear, and promotional text for a 50%~20% sale. Includes a list of 10 events and a map of the store location.